



제목	소설과 소설가
발행언어	한국어
발행처	민음사
발행일	2012. 9. 14.
저자	오르한 파묵 이난아(번역자)
출판도시	서울
페이지수	190
ISBN 또는 ISSN	978-8937485794

내용 요약

본 책은 오르한 파묵이 하버드 대학에서 한 영문학 강의 내용을 책으로 편찬한 것이다. 이 책의 원제는 『The Naive and the Sentimental Novelist』로 프리드리히 실러의 “Über naive und sentimentalische Dichtung(소박한 문학과 성찰적인 문학)”이라는 논문에서 따온 것인데, 파묵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소설가의 핵심 개념이 바로 “Naive”와 “Sentimental”에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파묵은 노턴 강연을 통해 35년 동안 소설을 쓰면서 겪은 자신의 창작 경험을 털어놓았으며, 자신이 소설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들을 기술하였다.

그는 창작을 하나의 여행에 비유하면서 이 책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어떤 정거장에 들렀는지, 소설 형식과 예술이 내게 무엇을 가르쳐 주었는지, 내가 어떤 예술적 한계에 부딪쳤는지, 또 어떻게 싸우고 어떻게 매달렸는지, 이론적 측면이 아니라 개인적인 모험으로써 설명하고 싶습니다. 한편으로는 내 강연이 개인적인 추억이나 발전에 관한 것이 아니라, 소설 예술에 관해 숙고할 계기를 제공하는 일종의 논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책은 내가 소설에 대해 아는 것들과 배운 것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들로 이루어진 하나의 총체입니다.”